

# 다문화청소년의 비행발달궤적과 선정요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Delinquency Trajectory of MZulti-cultural  
Juvenile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Group Selection

이 원 기\*\* · 유 효 은\*\*\* · 이 창 한\*\*\*\*

## 차 례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분석결과  
V. 결론

## • 국문요약 •

이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비행발달궤적을 도출하고 집단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설계되었다. 연구에는 다문화 청소년패널자료를 사용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집단기반 궤적모델 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다문화청소년의 비행행위는 성별, 우울, 학교적응, 거주인식, 피해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발달궤적과 관련해서는 다문화청소년들 5개의 비행발달궤적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궤적은 상승형, 초기 고비행형, 감소형, 저비행형, 무비행형의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비행발달궤적을 무비행집단과 비교하여 각 집단이 가지는 특징 및 선정요인에 대해 제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의 집단유형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고, 각 집단의 선정요인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비행 예방대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제어 : 다문화청소년, 다문화청소년패널, 비행, 발달궤적, 청소년비행

\*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 동국대학교(서울) 대학원 범죄학 석사(제1저자), E-mail : leewonki9@gmail.com

\*\*\* 동국대학교(서울) 대학원 범죄학 석사(공동저자), E-mail : cj.hyoeyun.yu@gmail.com

\*\*\*\* 동국대학교(서울) 경찰사범대학 교수(교신저자), E-mail : cheljunpapa@gmail.com

## I. 서론

세계의 지리적인 경계가 허물어지고 출신국과 정착국 사회의 경계가 무의미해지면서 한국사회 역시 다문화구성원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사회 내의 국제결혼가정은 전체부부의 7%가 넘었으며, 2017년 통계청 인구 총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구는 총 318,917 가구로 나타났다.<sup>1)</sup> 2017년 기준 한국은 총 인구 대비 약 4%가 다문화가정으로 나타나 다문화사회로 도입하고 있지만, 한국사회의 다문화 감성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이를 개선 할 연구와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7년에 발표된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수는 109,387명으로 전년의 99,186명과 비교하여 9.7% 상승했다. 청소년기는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주위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과업을 이행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수행에서 여러 종류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긍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 받거나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sup>2)</sup> 그러므로 다문화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다문화가정과 해당 가정의 자녀들이 한국사회에 올바르게 적응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다문화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학습부진 및 학교 부적응, 정체성과 심리적인 혼란, 언어능력 및 사회성 발달부족 등을 겪고 이와 같은 부정적 자국을 바탕으로 비행

1)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7.

2) 박민경,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문제가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관계의 중단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제33권 제3호, 2017, 170쪽.

및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sup>3)</sup> 실제로 다문화가정 도입국 자녀 10명 중 1명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up>4)</sup>,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의 가출빈도는 8배가 넘었고,<sup>5)</sup> 학업중단을 역시 4.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6)</sup>

그러나 다문화청소년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그들의 비행을 종단적이고 개별적인 연구가 아닌 일률적이고 횡단적으로 진행되었고,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청소년의 발달과정에 대해 객관적인 탐색을 어렵게 함에도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연구는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sup>7)</sup>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비행행위에 대해 문화적 특성과 발달과정을 고려하여 다문화청소년 집단 내의 상이한 비행관련 발달유형과 해당 발달궤적에 대한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특정시점에서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횡단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비행 발달궤적 및 예측요인에 대해 파악하고 차후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대처프로그램 설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 
- 3) 연보라,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V",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 145-166쪽.
  - 4) 윤경희·장일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위험성 예측을 위한 탐색적 연구", 경찰학논총, 제10권 제1호, 2015, 150쪽.
  - 5) 전영실 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12.
  - 6) 동아일보,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 비율 해마다 높아져", <http://news.donga.com/3/03/20151008/74061437/1>(2019. 4. 3. 검색).
  - 7) 양계민, "중도입국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실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 36쪽.

## Ⅱ. 이론적 배경

### 1. 다문화청소년의 정의

이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은 「다문화가족지원법」제 2조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규정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범주를 바탕으로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로 설정했다.

2006년 교육부에서 다문화청소년에 대해 처음 조사했을 때 다문화청소년 학생 수는 9,389명이었으나 10년 사이에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4년부터는 전체학생 대비 비율이 1%를 넘어섰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sup>8)</sup>

〈표 1〉 연도별 다문화청소년 학생수(명)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학생수	46,954	55,780	67,806	82,536	99,186	109,387
전체학생 대비비율	0.7%	0.9%	1.1%	1.4%	1.7%	1.9%

출처 :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2018.

### 2. 비행의 궤적에 관한 이론

발달범죄학에서의 발달이론<sup>9)</sup>을 바탕으로 하는 관점에서는 청소년의

8)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2018.

9) T. E. Moffitt, "A review of research on the taxonomy of life-course

비행의 시작, 지속, 중단과 같이 동태적인 변화와 궤적의 유형화에 관심을 가진다. 발달이론에서는 청소년의 비행 궤적을 결정하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고,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비행발달궤적의 차이가 발생하며, 그 특성을 바탕으로 비행발달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10)</sup>

Moffitt와 Piquero는 연구를 통해 청소년 비행의 발달궤적을 “청소년기 제한적(adolescence-limited)” 집단과 “생애 지속적(life course persistent)” 집단으로 구분하였다.<sup>11)</sup> 청소년기 제한적 집단의 경우 또래집단의 영향이나 정신적 성숙의 미달로 인해 비행을 저지르지만 사회화를 통해 관습적인 행동양식을 터득하고 비행을 멈추지만, 생애 지속적 집단의 비행이나 범죄행위는 유전적 혹은 후천적인 신경심리학적 문제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비행 및 범죄행위를 저지른다고 주장했다.

Nagin은 이러한 분석은 청소년의 비행발달궤적의 유형을 충분하게 분석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대안연구를 실시하였고,<sup>12)</sup> 이후 청소년 비행에 대한 일반적인 3-5개의 발달궤적을 제시되고 있다.<sup>13)</sup>

---

persistent versus adolescence-limited antisocial behavior”, *The status of criminological theory*, 2006, 3(5), pp. 277-311.

10) L. M. Broidy. et al.,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childhood disruptive behaviors and adolescent delinquency : a six-site, cross-natio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2003, 39(2), pp. 222-256.

11) A. R. Piquero & T. E. Moffitt., "Explaining the Facts of Crime : How the Developmental Taxonomy Replies to Farrington's Invitation." *Advances in criminological theory*, 2005, 20(5), pp. 51-72.

12) D. S. Nagin, *Group-Based Modeling of Development*. Cambridge, MA : Harvard Univ. Press, 2005.

13) M. H. Dulmen & E. A. Gony & A. Vest & D. J. Flannery, “Group-based

청소년 비행 발달궤적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집단 및 유형에 속하는 구성원들에게 적합한 비행예방정책과 탈비행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sup>14)</sup> 국내에서는 증가하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비행발달궤적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청소년의 비행발달궤적에 대한 연구만이 진행된 상황이다.<sup>15)</sup>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발달이론가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다문화청소년의 비행 발달궤적을 보고자 한다.

### 3. 비행의 궤적에 관련된 선행연구

#### 1) 개인요인

먼저 성별은 청소년의 비행 발달궤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sup>16)</sup> 일반적으로 남자청소년의 경우 여자청소년에 비해 비행을 많이 저지르고 강도가 심한 비행을 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행의 횟수가 증가하는 발달궤적을 가질 가능성이

---

trajectory modeling of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from childhood through adulthood : Exploring discrepancies in the empirical findings”, *The development of persistent criminality*, 2009, 61(3), pp. 288-314.

14) Y. Li & R. M. Lerner, “Trajectories of school engagement during adolescence : implications for grades, depression, delinquency, and substance use”, *Developmental psychology*, 2011, 47(1), pp. 233-260.

15) 정소희, "청소년비행의 발달궤적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2호, 2009, 56쪽.; 김세원·이봉주, "비행행동의 발달궤적 및 영향 요인", 아동학회지, 제30권 제5호, 2009, 31쪽.; 이상문, "청소년 비행 발달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 2013, 249쪽.

16) M. Windle & M. Wiesner, “Trajectories of marijuana use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 Predictors and outcom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004, 16(4), pp. 1007-1027.

높아진다.<sup>17)</sup>

청소년의 개인요인 중 기질과 관련된 우울감의 경우도 예측요인 중 하나로 주장되어왔다.<sup>18)</sup> 청소년이 느끼는 우울감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비행의 횟수가 증가하고 이후 성인기의 범죄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sup>19)</sup>

청소년의 피해경험 역시 청소년의 비행발달궤적에 있어 중요한 선정요인이자 영향요인 중 하나다.<sup>20)</sup> 연구를 통해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비행행위를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영향력은 장기적으로 청소년의 비행행위와 성인이 된 후의 범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up>21)</sup> 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행행위는 ‘중첩(overlap)’행위로 파악할 수 있는데, 종단연구를 통해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자 비행에 가담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교폭력, 집단따돌림과 같은 피해경험은 그들의 비행발달궤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2)</sup>

17) 정익중, "청소년비행 발달궤적의 다양한 유형",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3호, 2009, 274쪽.

18) 이상균, "청소년 비행행동에 대한 부모양육행동과 비행친구집단간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제8권 제2호, 2008, 147쪽.

19) M. J. Kofler. et al., "Depression and delinquency covariation in an accelerated longitudinal sample of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011, 79(4), pp. 458-480.

20) G. E. Higgins. et al., "Examining the link between being a victim of bullying and delinquency trajectories among an African American sample",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Review*, 2012, 22(2), pp. 110-122.

21) D. A. Murphy. et al., "Trajectories of delinquency from age 14 to 23 in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sample.",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ce and youth*, 2012, 17(1), pp. 47-62.

22) W. G. Jennings. et al., "A longitudinal assessment of the victim-offender

이 연구의 대상인 다문화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들과 달리 그들의 비행행위를 해석함에 있어 그들이 겪는 문화적응문제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고려해야한다고 주장은 후속 연구들을 통해 지지받고 있다.<sup>23)</sup> 다문화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 문제는 그들의 반복적인 비행행위에 대한 원인이 되고 이러한 특성은 다문화청소년들의 비행행위와 그들의 비행 발달궤적을 설명하는 중요요인으로 나타났다.<sup>24)</sup> 이러한 선행연구를 반영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개인요인에 문화적응스트레스를 포함하였다.

## 2) 가족요인

부모는 보호와 애정을 바탕으로 자녀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은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는데 있어 중요하다.<sup>25)</sup>

특히 다문화청소년에게 부모와의 강한 유대관계는 다문화청소년들의 비행행위를 조절해주는 요인이면서 새로운 환경적응에 대한 기초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up>26)</sup>

---

overlap”,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010, 25(12), pp. 2147-2174.

23) J. M. Jones & J. B. Sander & K. W. Booker, “Multicultural competency building : Practical solutions for training and evaluating student progress”, *Training and Education in Professional Psychology*, 2013, 7(1), pp. 12-40.

24) T. Einat & S. Herzog, “A new perspective for delinquency : culture conflict measured by seriousness percep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2011, 55(7), pp. 1072-1095.

25) 김경숙·남현우, "청소년비행 예측요인의 종단적 변화",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2호, 2010, 302쪽.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청소년의 비행 증가에 일관된 정적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의 초기비행에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다.<sup>27)</sup> 청소년의 비행궤적을 선정하는데 있어 부모의 지지 부재는 청소년의 비행을 증가시키고 상습 비행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sup>28)</sup>

### 3) 친구와 학교요인

학교는 청소년들이 가정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며 청소년의 사회적·정서적 발달을 도모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하다.<sup>29)</sup> 교사와 친구들의 지지는 청소년의 탈비행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청소년들이 교사와 친구들 사이에 형성되는 불충분한 지지는 청소년의 비행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었고, 후속 연구들을 통해 청소년의 발달궤적 선정과 비행지속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었다.<sup>30)</sup>

친구의 지지와 교사의 지지는 청소년의 초기비행에 있어 중요한 요인 이면서 동시에 비행 지속에도 중요한 요인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sup>31)</sup> 친구 및 교사와 부정적 유대관계 및 지지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26) M. Hoeve. et al., "A meta-analysis of attachment to parents and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012, 40(5), pp. 771-785.

27) D. S. Shaw & L. W. Hyde & L. M. Brennan, "Early predictors of boys' antisocial trajectori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012, 24(3), pp. 871-888.

28) A. L. Tobler & K. A. Komro, "Trajectories of parental monitoring and communication and effects on drug use among urban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010, 46(6), pp. 560-568.

29) 정익중, 앞의 논문.

30) D. S. Shaw & L. W. Hyde & L. M. Brennan, op. cit.

의 경우 만성 비행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2)</sup>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과 관련해서는 친구 혹은 교사와의 관계와 더불어 학교적응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sup>33)</sup> 학교부적응은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증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부적응 문제의 적절한 완충 없이는 상습적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34)</sup>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비행 발달궤적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만성비행집단” 혹은 “비행상습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5)</sup>

---

31) E. E. O'Connor & E. Dearing & B. A. Collins,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behavior problem trajectories in elementary school.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011, 48(1), pp. 120-162.

32) K. L. Henry & K. E. Knight & T. P. Thornberry, “School disengagement as a predictor of dropout, delinquency, and problem substance use during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12, 41(2), pp. 156-166.

33) K. Kendrick & G. Jutengren & H. Stattin, “The protective role of supportive friends against bullying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Journal of adolescence*, 2012, 35(4), pp. 1069-1080.

34) M. T. Wang & T. J. Dishion, “The trajectories of adolescents’ perceptions of school climate, deviant peer affiliation, and behavioral problems during the middle school year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012, 22(1), pp. 40-53.

35) S. D. Lynne-Landsman. et al., “Trajectories of aggression, delinquency, and substance use across middle school among urban, minority adolescents”, *Aggressive behavior*, 2011, 37(2), pp. 161-176.

#### 4) 지역사회요인

청소년의 비행과 비행발달궤적에 영향을 주는 지역사회요인으로는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이 있다.<sup>36)</sup> 청소년이 가지는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 수준은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측정되는데, 청소년이 교류하는 지역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이 부족한 경우 적절한 규범을 습득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비행행위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sup>37)</sup>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비행을 자제할 수 있는 통제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만성적인 비행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줄여준다.<sup>38)</sup>

36) D. M. Heretick & J. A. Russell, “The impact of juvenile mental health court on recidivism among youth”, *Journal of Juvenile Justice*, 2013, 3(1), pp. 16–31.

37) 정익중, 앞의 논문.; G. E. Higgins. et al.,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nonsocial reinforcement and offending in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An exploratory study of an understudied part of social learning theor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011, 39(1), pp. 60–66.

38) E. P. Bowers. et al., “The role of ecological assets in positive and problematic developmental trajectories”, *Journal of Adolescence*, 2011, 34(6), pp. 1151–1165.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다문화청소년패널데이터(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Date)이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자료는 2011년 초등학교 4학년의 다문화청소년 1,6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2016년 해당 다문화청소년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이 연구에는 종속변수인 비행을 측정 한 3차년도 자료부터 6차년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 2. 변수의 측정

##### 1) 종속변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결측을 제외한 총 1,317명의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1년간의 비행횟수를 측정한 문항을 사용했다. 비행의 유형은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술을 마신 적이 있다’, ‘가출한 적이 있다’, ‘학교를 빼먹은 적이 있다’, ‘성인사이트를 본 적이 있다’,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뺨 뜯은) 적이 있다’, ‘폭력 씨클(집단)에 가입한 적이 있다’, ‘패싸움을 해 본 적이 있다’라는 질문으로 구성되어있다. 가입한 값에 따라 0회는 0으로, 1-2회는 1로, 3-4회는 2, 5-10회는 3, 11회 이상은 4로 재코딩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비행문항의 빈도에 대한 응답을 합산한 뒤 5점 척도로 재구성했는데 이는 비행의 분포에 관한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청소년의 비행의 발달궤적을 연구할 때 사용되는 방법 중 한가지이다.<sup>39)</sup> <표 1>은 측정 기간 동안의 비행 정도를 보여준다. 이를 보면 조사 기간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비행의 정도가 심해지는 것을 보여준다.

<표 1> 종속변수의 기술통계값

N=1,317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비행3차	0	4	.1701	.5873
비행4차	0	4	.1716	.6257
비행5차	0	4	.1929	.6792
비행6차	0	4	.2604	.8323

## 2) 독립변수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비행발달궤적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요인, 가정요인, 친구와 학교요인, 지역사회 요인으로 나누어 독립변수를 설정하였다.

성별의 경우 여성인 경우를 0, 남성인 경우를 1로 재코딩하여 분석했다. 조사에 활용한 모든 설문 문항은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s alpha 값이 한 가지의 척도로 사용가능한 기준인 0.6 이상을 충족시켜 이상이 없었다.<sup>40)</sup>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의 설문문항과 신뢰도는 아래 <표 2>, <표 3>과 같다.

39) 이상문, 앞의 논문, 2013.

40) 이희연·노승철, 고급통계분석론 : 이론과 실습, 문우사, 2013.

〈표 2〉 변수측정문항과 신뢰도

변인	응답내용	신뢰도	
		3차	6차
문화적응 스트레스	다른 사람이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갖고 농담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777	.757
	외국인 부모님이 다른 나라 사람이어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		
	한국에 사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한국어를 잘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주변에서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스트레스를 준다		
	나의 부모님이 외국인이라서 무시를 당한다		
	나의 부모님이 외국인이라고 친구들이 따돌린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우리 식구를 못살게 군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 식구를 못살게 군다		
외국인 부모님 나라보다 한국에서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우울	나는 기운이 별로 없다	.915	.905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나는 걱정이 많다		
	나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나는 울기를 잘 한다		
	나는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나는 외롭다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나는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는 것 같다		
나는 모든 일이 힘들다			
피해경험	다른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	.715	.685
	다른 학생들로부터 욕을 듣거나 심한 집적거림이나 또는 놀림을 당했다		
	다른 학생들이 나를 고의로 어떤 일에 끼워주지 않거나 완전히 무시했다		
	다른 학생들로부터 맞거나 발로 차이거나 위협을 당했다		
	나에 대해 거짓소문을 퍼뜨려서 다른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게 되었다		
다른 학생들로부터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에 대해 험한 욕설을 듣거나 놀림을 당했다			

변인	응답내용	신뢰도	
		3차	6차
가족지지	우리 가족은 서로 많이 도와주는 것 같다	.942	.945
	우리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		
	우리 가족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 같다		
	우리 가족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우리 가족은 내가 힘들어할 때 내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 같다		
	우리 가족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친구지지	내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944	.948
	내 친구들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		
학교적응	나는 학교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744	.783
	나는 학교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나는 모든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친구들)에게 물어본다		
	나는 공부시간에 딴 짓을 한다 (*)		
교사지지	우리 담임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941	.922
	내가 아프거나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담임선생님은 날 걱정해주는 것 같다		
	우리 담임선생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것 같다		
지역사회 인식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다	.718	.750
	나는 거리에서 우리 동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		
	우리 동네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경계한다 (*)		
	나는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나는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		

\* : 역코딩

〈표 3〉 독립변수의 기술통계값

3차년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성별	0	1	0.49	0.50
문화적응 스트레스	10	32	14.28	3.69
우울감	0	29	5.96	5.18
피해경험	0	18	0.48	1.76
가족지지	0	21	15.64	3.90
친구지지	0	12	8.88	2.60
학교적응	0	15	9.81	2.48
교사지지	0	12	8.19	2.74
거주지역 인식	2	18	12.30	2.83

6차년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문화적응 스트레스	12	33	14.34	2.54
우울감	0	30	7.15	5.36
피해경험	0	18	0.17	1.15
가족지지	0	21	15.31	3.79
친구지지	0	12	9.08	2.36
학교적응	0	15	9.39	2.57
교사지지	0	12	8.56	2.44
거주지역 인식	1	18	11.53	2.96

더불어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게 되면 회귀계수의 분산이 커져 연구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sup>41)</sup> 3차와 6차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사한 결과, VIF지수가 절대값 2를 넘지 않았으며, 상관관계 역시 가장 큰 값은 3차 교사지지와 친구지지의 상관계수 값(.520)으로 절대 값 0.8이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다고 추정할 수 있다.

### 3.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종단적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비행발달궤적 유형 및 요인에 대해 분석하는데 적합한 분석 방법인 집단기반 궤적모델 분석(group-based trajectory mod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sup>42)</sup> 집단기반 궤적모델 분석은 한 모집단 내에 확연히 구별되는 여러 집단이나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이러한 집단 간의 구별을 통해 모집단 내에서 관찰되지 않은 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up>4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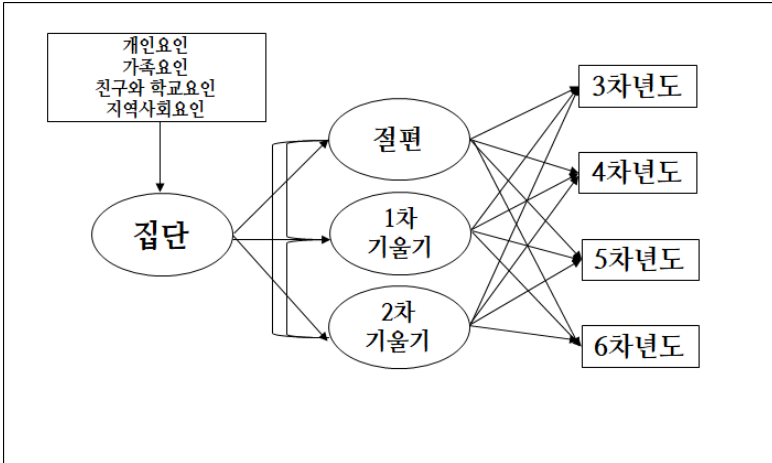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집단기반궤적모델의 통합적 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연구모형 분석을 위한 모델의 추정치는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추정치에 대한 계산은 Mplus 8.0(Muthén & Muthén, 20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41) D. S. Nagin & C. L. Odgers, "Group-based trajectory modeling in clinical research.",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2010, 6(3), pp. 109-138.

42) D. S. Nagin & C. L. Odgers, op. cit.

43) B. L. Jones & D. S. Nagin, "Advances in group-based trajectory modeling and an SAS procedure for estimating them",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007, 35(4), pp. 542-571.

〈그림 1〉 연구모형



## IV. 분석결과

### 1. 비행빈도별 집단 수 결정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궤적의 유형을 분석하는 과정은 측정된 지표들의 상호독립성을 전제로 한 개의 집단부터 집단의 수를 1개씩 증가시키면서 각 모델의 적합도를 분석하여 최종 모델을 추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다양한 적합도 지수(fit index) 중에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와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a)를 사용하였고, 집단 구분에 대한 정확함을 파악하기 위해 LMR-LRT 지수를 사용하여 적정 잠재집단의 수를 확인하였다.

<표 4>는 집단의 수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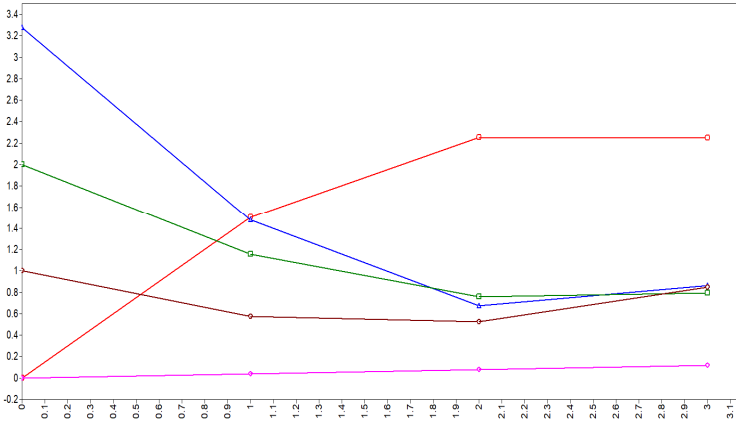
자료에 적합한 궤적의 수를 도출한 결과 5개의 집단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4〉 집단별 평균절편과 기울기

Group	Model Fit		Entropy	LMT-LRT (p-value)
1	AIC 108020	BIC 10856	—	—
2	AIC 8478	BIC 8535	0,989	0,000
3	AIC 7610	BIC 7688	0,976	0,190
4	AIC 6761	BIC 6859	0,979	0,727
5	AIC 5297	BIC 5416	0,996	0,258
6	AIC 5943	BIC 6083	0,986	0,407

〈표 5〉는 집단기반궤적모델의 가정에 의해 5집단 분류를 적정 모델이라고 하였을 때 도출되는 집단별 궤적이다. 집단1은 측정 초기에 비행횟수가 거의 없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는 궤적을 그리고 있는 ‘상승집단’으로, 총 39명이 포함되어 전체의 3.0%를 차지한다. 집단 2는 초기에 가장 높은 빈도로 비행행동을 보고했으나 시간이 가면서 큰 폭으로 감소하는 궤적을 그리는 ‘초기 고비행 집단’이며 총 29명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한다. 집단3의 경우, 초기에 중간빈도의 비행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 감소하는 궤적을 보이는 ‘감소집단’으로 총 23명이 포함되어 전체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집단4의 경우 지속적으로 낮은 빈도의 비행궤적을 그리는 ‘저비행집단’으로, 83명이 저비행집단에 속하며 전체의 6.3%를 차지한다. 마지막 5집단은 거의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무비행집단’으로 1143명이 무비행집단에 속하였으며 전체의 86.7%를 포함된다.

〈표 5〉 집단별 비행궤적 예측치



집단 간 궤적의 차이는 잠재적 변수들의 절편의 차이로 나타난다. 잠재적 변수 절편(I)과 1차 기울기(S)에 대한 세 집단의 절편은 모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고, 2차 기울기(Q)에 대한 절편은 집단 상승집단과 무비행집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집단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6>은 초기 측정기인 3차와 마지막 측정기인 6차의 잠재적 변수 절편에 대한 투입변수의 값을 나타냈다. 측정시작시점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를 토대로 남자일수록, 우울감이 심할수록,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학교적응을 못할수록, 거주인식이 좋을수록 측정이 시작되는 시기(3차)에 비행의 빈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시간이 지난 후 조사 마지막 시점의 절편 값에 대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보면 성별이 남자일수록,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학교적응을 못할수록 높은 빈도로 비행을 경험하였다. 이는 조사 시간이 지나면서 우울감이나 거주지에 대한 인식이 다문화청소년의 비행 빈도에 주는 영향력은 약해지고, 반대로 학교적응정도 ( $p < .001$ )와 피해경험( $p < .01$ )의 영향력은 좀 더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6〉 3차·6차의 변수별 비행계적 예측치

변수	절편(3차)			절편(6차)		
	예측치	S.E	t	예측치	S.E	t
성별	.139***	.032	4.340	.121***	.018	6.541
문화스트레스	-.006	.005	-1.343	.005	.004	1.333
우울	.012**	.004	3.081	.002	.002	.751
피해경험	.023*	.010	2.383	.027**	.008	3.424
가족지지	-.005	.005	-1.004	.002	.003	.809
친구지지	.002	.004	.456	.007	.005	1.331
학교적응	-.024**	.008	-2.976	-.022***	.004	-5.213
교사지지	.002	.004	.467	-.004	.005	-.757
거주인식	.020**	.006	3.096	.003	.003	1.008
(상수)	-129	.218	-5.92	.208*	.092	2.257

\*p<0.05 \*\*p<0.01 \*\*\*p<0.001

## 2. 집단별 계적선정요인

다음은 각 집단별로 집단계적 선정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앞에서 나  
 닌 5개의 집단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을 실시하여, 각 집단마다 유의미한 변수만을 기호로 나타내었다. 변수  
 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경우 '+', 부(-)적으로 유의미할 경우 '-'로  
 표시하였으며, 표시되지 않은 변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이다.

〈표 7〉 집단별 귀적선정요인 비교

변수 \ 집단	절편(3차)					절편(6차)				
	1	2	3	4	5	1	2	3	4	5
성별(남)	+	+		+	-	+	+		+	-
문화스트레스										
우울	+	+			-					
피해경험	-			+			+			-
가족지지										
친구지지	+									
학교적응						-	-	-	-	+
교사지지	-									
거주인식		+								

\* 1집단 : 상승집단    2집단 : 초기 고비행집단    3집단 : 감소집단  
 4집단 : 저비행집단    5집단 : 무비행집단

상승집단의 경우 시작 시점(3차)에 남학생일수록, 우울감이 높을수록, 친구의 지지가 강할수록, 교사의 지지가 낮을수록, 피해 경험이 없을수록 다른 집단보다 상승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마지막 시점에(6차) 성별과 학교적응만이 유의미하여, 우울, 친구지지, 교사지지, 피해경험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학교적응을 어려워할수록 비행정도가 상승하는 상승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음을 나타냈다.

초기 고비행집단의 경우, 남학생일수록, 우울감이 높을수록, 거주인식이 좋을수록 다른 집단에 비해 초기 고비행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나, 6차의 경우 성별, 학교적응, 피해경험이 유의미하여 다른 집단보다 초기 고비행집단이 학교적응을 못하고 피해경험이 많다고 분류되었다.

감소집단의 경우 초기에는 다른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교적응변수만 유의미하였다. 즉, 무비행집단을 제외한 집단의 청소년들은 시간이 경과한 후 학교적응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저비행집단의 경우 남학생일수록,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다른 집단이 아닌 저비행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마찬가지로 학교적응만이 부(-)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무비행집단의 경우 여학생일수록 우울감이 적을수록 다른 집단보다 무비행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시간이 흐른 후에는 학교적응 변수와 피해경험 변수가 유의미한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집단의 경우 비행을 경험하면서 집단괴롭힘 피해를 경험하고, 학교적응이 어려워짐에 따라 무비행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앞의 두 개의 변수가 유의미해졌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밝혔던 청소년 비행과 피해의 중첩현상과 이로 인한 학교에의 부적응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 예측해본다.<sup>44)</sup>

### 3. 무비행집단 기준 집단선정요인 비교

#### 1) 3차년도 분석 결과

다음 <표 8>은 비행집단 선정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무비행집단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여 다항로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44) 신혜섭, "중학생의 학교폭력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청소년학연구, 제12권 제4호, 2005, 142-143쪽.; 박순진, "청소년 폭력 비행에 있어서 가해-피해의 연계", 피해자학연구, 제3권 제2호, 2005, 258-259쪽.

우선, 무비행집단과 비행상승집단을 비교한 결과 남학생일수록, 우울감이 심할수록, 친구지지가 많을수록, 교사의 지지가 적다고 느낄수록, 상승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초기 고비행집단의 경우에는 남성일수록, 우울감이 심할수록, 거주지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 무비행집단이 아닌 초기 고비행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다음으로 감소집단과 무비행집단을 비교한 결과 학교적응을 못할수록, 감소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저비행집단과 무비행집단과의 비교에서는 남학생일수록,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저비행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3차년도 분석의 경우 남학생이 비행집단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았다. 또한 교사의 지지가 약하고, 친구의 지지정도가 높을수록 이후 비행의 빈도가 상승함을 예측할 수 있다. 높은 우울정도는 초기의 높은 비행빈도와 이후의 높은 빈도궤적을 갖는 집단 모두의 특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인식이 긍정적이라면 초기 높은 비행빈도를 그리다 이후 감소하는 궤적을 그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감소집단의 경우 무비행집단보다 학교적응을 어려워하며, 저비행집단은 집단괴롭힘 피해를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무비행집단 대비 집단별 제적선정요인(3차년도)

변수 (3차)	상승/무비행			조기교비행/무비행			김소/무비행			저비행/무비행		
	예측치	SE	t	예측치	SE	t	예측치	SE	t	예측치	SE	t
성별	3.187***	.883	3.609	1.630**	.505	3.228	.676	.440	1.536	.679**	.237	2.859
문화 스트레스	-.010	.043	-.243	-.044	.052	-.853	-.021	.051	-.400	-.046	.040	-1.145
우울	.133***	.036	3.682	.121*	.048	2.524	.056	.048	1.168	.045	.028	1.589
피해경험	-.093	.101	-.929	.065	.075	.862	-.009	.071	-.131	.128**	.048	2.696
가족지지	.061	.055	1.102	-.049	.059	-.825	-.062	.042	-1.454	.006	.034	.184
친구지지	.211*	.096	2.206	.039	.082	.470	-.010	.091	-.109	0.023	.057	.408
학교적응	.018	.080	.222	-.185	.096	-1.923	-1.70*	.085	-1.987	-.095	.054	-1.768
교사지지	-.018*	.080	-.222	.075	.084	.898	.002	.0084	.025	-.055	.057	-.972
가중인식	-.058	.076	-.768	203*	.083	2.437	.118	.076	1.542	.037	.051	.722
질 판	-6.922**	1.709	-4.051	-6.413***	1.802	3.559	-3.166*	1.600	-1.978	-2.878*	1.155	-2.493

\*p<0.05 \*\*p<0.01 \*\*\*p<0.001

## 2) 6차년도 분석 결과

아래의 <표 9>는 6차년도를 대상으로 한 무비행집단 대비 집단별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상승집단의 경우 남학생일수록, 학교적응이 어려운 학생일수록, 무비행집단이 아닌 상승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3차년도에 비교하면 우울이나 친구지지, 교사지지에 대한 영향력은 낮아졌으며, 학교적응에 대한 변수는 새롭게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졌다.

초기 고비행집단의 경우 학교에 적응을 어려워할수록,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초기 고비행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3차와 비교하였을 때 우울감과 거주인식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가 되고 학교적응은 새롭게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감소집단 역시 학교적응이 어려울수록, 감소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3차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변수는 같으나 영향력이 더 강해졌음을 알 수 있어, 감소집단에 속하는 다문화청소년들의 비행 정도는 감소했지만 학교부적응 정도는 다소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저비행집단도 무비행집단에 비해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들과 집단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학생이 저비행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3차와 비교해보면 학교적응 변수는 새롭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6차년도 분석의 경우 비행경험집단 모두 무비행집단보다 학교적응을 못하였다. 또한 일부집단의 경우 괴롭힘 피해영향력이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비행의 특성인 가해·피해 중첩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차와 비교한 결과는 심리적인 요인과 사회유대적 요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별되는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무비행집단 대비 집단별 제적선정요인(6차년도)

변수 (6차)	상승/무비행			초기고비행/무비행			감소/무비행			저비행/무비행		
	예측치	S.E	t	예측치	S.E	t	예측치	S.E	t	예측치	S.E	t
성별	2.778***	.643	4.323	1.623**	.559	2.902	.677	.456	1.484	.601*	.237	2.534
문화스트레스	.067	.067	0.993	-0.15	.076	.193	.056	.082	.685	.038	.053	.719
우울	.055	.038	1.469	-0.76	.045	-1.702	.041	.041	.995	-0.10	.029	-3.34
피해경험	.201	.166	1.217	.310***	.069	4.496	-.135	.215	-6.28	.145*	.066	2.196
가족지지	.023	.071	.329	-0.74	.064	-1.380	-0.26	.070	-3.70	.048	.039	1.230
친구지지	.103	.120	.860	-0.19	.113	-1.163	.195	.128	1.519	.066	.068	.974
학교적응	-.264**	.081	-3.251	-.393***	.085	-4.630	-.233**	.081	-2.884	-.189**	.055	-3.440
교사지지	-.095	.107	-.891	.043	.124	.349	.023	.115	.200	-.008	.073	-.104
가주인식	.078	.068	1.145	.089	.076	1.167	.045	.084	.537	-.013	.045	-.298
절편	-5983***	1.492	-4.011	-0.943	1.769	-0.533	-5.431*	2.252	-2.412	-2.864	1.468	-1.951

\*p<0.05 \*\*p<0.01 \*\*\*p<0.001

### 3) 초기고비행집단과 상승집단의 비교

초기 고비행집단은 조사시작 시점에는 비행의 정도가 높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정도가 약해졌고, 반대로 상승집단의 경우 조사시작 시점에서는 비행의 정도가 약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정도가 높아지는 집단으로 두 궤적은 4차년도에서 궤적이 만나 그 이후 반대의 방향으로 발달한다. 그러므로 이 두 궤적의 비교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적으로 독립변수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3차의 경우 상승집단 대비 초기 고비행집단은 교사지지( $p<.05$ )변수와 거주지역 인식( $p<.05$ ) 변수가 정(+)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즉, 초기에 비행을 많이 경험하는 집단은 상승집단보다 교사의 지지를 더 많이 인식하고, 거주지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초기 고비행집단에 속했던 다문화청소년들이 교사의 지지와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을 통해 그들의 비행행위를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6차분석에서는 우울감이 유의미한 변수로 새롭게 나타나고( $p<.05$ ), 교사지지와 거주지역 인식 변수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9〉 상승집단 대비 초기 고비행집단 궤적선정요인

변수	초기고비행/상승 (3차)			초기고비행/상승 (6차)		
	예측치	S.E	t	예측치	S.E	t
성별	-1.556	1.015	-1.534	-1.155	.864	-1.337
문화스트레스	-.034	.064	.528	-.082	.097	.842
우울	-.011	.058	-.198	<b>-.131*</b>	.055	<b>-2.370</b>
피해경험	.158	.117	1.346	.109	.175	.623
가족지지	-.110	.080	-1.369	-.098	.085	-1.153

변수	초기고비행/상승 (3차)			초기고비행/상승 (6차)		
	예측치	S.E	t	예측치	S.E	t
친구지지	-.172	.123	-1.403	-.122	.159	-.770
학교적응	-.202	.122	-1.658	-.129	.111	-1.161
교사지지	.240*	.114	2.099	.138	.158	.875
거주인식	.262*	.110	2.368	.010	.097	.106
절편	.509	2.414	0.211	5.040*	2.223	2.267

\*p<0.05 \*\*p<0.01 \*\*\*p<0.001

## V. 결론

이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비행발달궤적을 도출하고 집단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러한 집단중심발달궤적 분석의 장점은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방지하고 다문화청소년 비행에 있어 보호요인을 발견하여 비행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는 비행경로에 따른 궤적을 도출하여 세분화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비행의 유무만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비행의 횟수에 따라 집단을 여러개로 구분하여 그 집단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확인했기 때문에 횡단적 연구보다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에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자료(3차-6차)를 활용하여 집단중심 발달궤적 모형을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비행은 상승형, 초기 고비행형, 감소형, 저비행형, 무비행형인 5집단이 최적모형으

로 분류되었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초기 고비행집단과 감소집단의 경우는 Moffitt의 발달이론에서 주장하는 청소년기 중단형 비행집단과 일치한다고 말 할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비행 빈도에 따른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 우울, 학교적응, 거주인식, 피해경험이 다문화청소년의 비행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해보면 무비행집단보다 남학생일수록, 우울할수록, 친구의 지지가 강할수록, 교사의 지지가 약할수록 비행 상승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상승집단의 특징은 다른 집단과는 유달리 구별되는 변수는 교사지지가 약하고 친구지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친구지지의 경우 차별접촉이론과 다수의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비행친구와의 유대감이 높아 시간이 흐르면서 비행궤적을 상승시킨 것이라 추측이 가능하지만,<sup>45)</sup> 조사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조사되지 않아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초기 고비행집단의 경우 무비행집단에 비하여 남학생일수록 우울할수록 거주지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초기 고비행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은 상승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이 좋다면 조사 시작시점에서 비행의 정도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비행이 감소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과는 별개로 주민들이 상호신뢰와 유대가 형성되면 지역 내의 범죄 및 비행에 개입할 수 있는 통제역할을 한다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

45) 정익중, 앞의 논문.; 정소희, 앞의 논문.; 김세원·이봉주, 앞의 논문; 이은주, "청소년 비행의 발달궤적",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2호, 2012, 208쪽.

며,<sup>46)</sup> 청소년의 거주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향상시키는 일은 비행 청소년의 탈비행에 기여하는 변수가 된다고 볼 수 있다.<sup>47)</sup>

감소집단의 경우에는 무비행집단에 비해 학교 부적응이 유일하게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비행은 아니고 중간빈도의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 학교에의 부적응이 원인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저비행집단의 경우에는 조사 시작시점과 마지막 시점 모두 피해경험이 차별되는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일반청소년 비행뿐만 아니라 다문화청소년에게도 발견되는 비행 가해-피해의 중첩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sup>48)</sup> 그러나 저비행집단의 경우 미국의 발달궤적 연구에서는 쉽게 관찰되지 않으나 국내의 발달궤적 연구에서는 자주 관찰되는 유형이다. 기존의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저비행집단은 학업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심각한 비행대신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경비행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sup>49)</sup> 이 연구 역시 일반청소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학업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고, 혹은 다문화적 특성에서 겪는 따돌림피해가 긴장으로 작용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비행을 저지르는 가능성 역시 생각할 수 있다.

더불어 조사마지막 시점의 변수투입을 통해 무비행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학교적응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비행과 관련된 발달궤적이 상승하거나 감소하는 집단 모

46) E. Silver & L. L. Miller, "Sources of informal social control in Chicago Neighborhoods", *Criminology*, 2003, 42(3), pp. 551-583.

47) T. E. Moffitt, 1993, op. cit.; 신혜진,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통제력, 비행친구 접촉을 매개로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연구*, 제13권 제2호, 2017, 134쪽.

48) 전영실 외, 앞의 책.

49) 정익중, 앞의 논문.

두 학교에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학교폭력 및 비행의 가해와 피해 정도가 심할 경우 전반적인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sup>50)</sup> 비행행위를 지속하는 집단의 경우 학교규칙이나 선생님 등과 같은 학교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비행을 저지르거나, 혹은 비행의 결과로 학교 내의 지지체계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비행의 궤적이 상승하는 집단 대비 궤적이 내려가는 집단을 비교한 결과 상승하는 집단은 조사 시작시점 시 교사와의 지지가 낮고 거주인식에 대한 부정적인식이 강하고, 조사 끝 시점에서는 우울감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Moffit의 발달이론과 동일하게 사회와의 지지가 강할수록 비행의 빈도가 증가한다는 결과와 맥락이 같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분석결과 다문화가정청소년의 특성인 문화적응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비행은 정(+)적 관계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상승집단과 초기 고비행집단과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추후 비행의 빈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석가능하다. 그러므로 다문화청소년들이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서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긴장요인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50) 김혜원, "청소년들의 집단따돌림과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에 따른 심리적 부적응 및 학교 부적응",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5호, 2011, 351-352쪽.; E. S. Buhs, "Peer rejection, negative peer treatment, and schooladjustment : Self-concept and classroom engagement as mediating processe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005, 43(3), pp. 407-424.

둘째, 비행의 정도가 상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초기단계에서 교사와의지지, 거주지에 대한 인식, 우울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세 변수는 초기 고평해집단과 상승집단에서 비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다문화청소년이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교사 및 지역유대관계를 도울 수 있는 개인과 학교, 지역사회 통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심리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비행경험이 있는 집단 모두 이후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기 비행행동을 통해 학교시스템과 선생님과 부정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학교에 적응을 어려워할 수록 다시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sup>51)</sup> 학교적응프로그램의 개설을 통하여 학교적응력을 향상시켜 학교생활에 대한 내적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가정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적응 프로그램의 경우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사회성 증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sup>52)</sup> 다문화청소년들이 학교를 벗어나 사회생활을 하며 마주치게 될 어려움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의 경우 저비행집단(3차·6차)과 초기 고평해집단(6차)에 속한 다문화청소년들의 비행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비행행동을 저지르는 다문화청소년들이 괴롭힘 피해에도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행의 중첩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괴롭힘 피해를 쉽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51) 장연심·조아미,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미래 청소년학회지, 제4권 제1호, 2007, 133쪽.

52) 박승희 외, "학교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 제7권 제2호, 2007, 17쪽.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 비행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차후 연구에서는 다문화적 특성을 다각적으로 포함시켜서 다문화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의 비행에 대한 요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 변수만을 사용했지만 스스로 형성한 국가정체성이나 부모의 다문화적 요인을 활용하여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이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4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궤적을 확인하였지만, 추후 패널자료가 현재보다 더 광범위하게 구축된다면 비행의 발달궤적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비행발달궤적에 대한 영향요인을 3차와 6차 변수만을 투입하여 해석하였는데, 이는 영향요인의 변화 궤적을 살필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변화를 추측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Time-varying covariates 분석 또는 Joint trajectory 분석이 요구된다. 더불어 비행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비행유형별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구체적인 제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접수 : 2019. 3. 29, 심사개시 : 2019. 4. 9, 게재확정 : 2019. 5. 9〉

## 참 고 문 헌

### I. 국내문헌

#### 1. 단행본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2018.

이희연·노승철, 고급통계분석론 : 이론과 실습, 문우사, 2013.

전영실 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12.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7.

연보라,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V,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

#### 2. 논 문

김경숙·남현우, “청소년비행 예측요인의 종단적 변화”,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2호, 2010.

김세원·이봉주, “비행행동의 발달궤적 및 영향요인”, 아동학회지, 제30권 제5호, 2009.

김중곤, “청소년의 비행 발달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종단분석”, 청소년학연구, 제25권 제11호, 2018.

김혜원, “청소년들의 집단따돌림과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에 따른 심리적 부적응 및 학교 부적응”,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5호, 2011.

박민경,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문제가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관계의 종단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제33권 제3호, 2017.

박민경,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문제가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관계의 종단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제33권 제3호, 2017.

- 박순진, “청소년 폭력 비행에 있어서 가해-피해의 연계”, 피해자학연구, 제4권 제2호, 2005.
- 박승희 외, “학교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 제7권 제2호, 2007.
- 신혜섭, “중학생의 학교폭력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청소년학연구, 제12권 제4호, 2005.
- 신혜진,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통제력, 비행친구 접촉을 매개로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연구, 제13권 제2호, 2017.
- 양계민, “중도입국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실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
- 윤경희·장일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위험성 예측을 위한 탐색적 연구”, 경찰학논총, 제10권 제1호, 2015.
- 이상균, “청소년 비행행동에 대한 부모양육행동과 비행친구집단간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제15권 제1호, 2008.
- \_\_\_\_\_, “청소년 비행 발달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 2013.
- 이상문, “청소년 비행궤적에 관한 두 가지 모델의 검증 : 집단기반궤적 모델과 성장혼합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제5권 제2호, 2011.
- 이은주, “청소년 비행의 발달궤적”,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2호, 2012.
- 장연심·조아미,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미래청소년학회지, 제4권 제1호, 2007.
- 정소희, “청소년비행의 발달궤적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2호, 2009.
- 정익중, “청소년비행 발달궤적의 다양한 유형”,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3호, 2009.

## II. 외국 문헌

### 1. 단행본

- Berry, W. D., Feldman, S., & Stanley Feldman, D., Multiple regression in practice, CA : Sage, 1985.
- Gottfredson, M. R. & T. Hirschi.,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 Mayer, S. E., What money can't buy : Family income and children's life chances,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 Muthen, L. K., & Muthén, B. O., Mplus user's guide, CA : Muthén & Muthén, 2010.
- Nagin, D. S., Group-Based Modeling of Development. Cambridge, MA : Harvard Univ. Press, 2005.

### 2. 논문

- Bowers, E. P., & Eye, A., & Lerner, J. V., & Arbeit, M. R., & Weiner, M. B., & Chase, P., & Agans, J. P., "The role of ecological assets in positive and problematic developmental trajectories", *Journal of Adolescence*, 2011, 34(6), pp. 1151-1165.
- Broidy, L. M., & Nagin, D. S., & Tremblay, R. E., & Bates, J. E., Brame, B., & Dodge, K. A., & Lynam, D. R.,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childhood disruptive behaviors and adolescent delinquency : a six-site, cross-natio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2003, 39(2), pp. 222-256.
- Buhs, E. S., "Peer rejection, negative peer treatment, and schooladjustment : Self-concept and classroom engagement as mediating processe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005, 43(3), pp. 407-424

- Einat, T., & Herzog, S., "A new perspective for delinquency : culture conflict measured by seriousness percep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2011, 55(7), pp. 1072-1095.
- Henry, K. L., & Knight, K. E., & Thornberry, T. P., "School disengagement as a predictor of dropout, delinquency, and problem substance use during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12, 41(2), pp. 156-166.
- Heretick, D. M., & Russell, J. A., "The impact of juvenile mental health court on recidivism among youth", *Journal of Juvenile Justice*, 2013, 3(1), pp. 16-31.
- Higgins, G. E., & Jennings, W. G., & Marcum, C. D., & Ricketts, M. L., & Mahoney, M.,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nonsocial reinforcement and offending in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 An exploratory study of an understudied part of social learning theor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011, 39(1), pp. 60-66.
- Higgins, G. E., & Khey, D. N., & Dawson-Edwards, B. C., & Marcum, C. D., "Examining the link between being a victim of bullying and delinquency trajectories among an African American sample",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Review*, 2012, 22(2), pp. 110-122.
- Hoeve, M., & Stams, G. J. J., & Put, C. E., & Dubas, J. S., & Laan, P. H., & Gerris, J. R. (2012). "A meta-analysis of attachment to parents and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0(5) : 771-785.

- Jennings, W. G., & Higgins, G. E., & Tewksbury, R., Gover, A. R., & Piquero, A. R., "A longitudinal assessment of the victim-offender overlap",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010, 25(12), pp. 2147-2174.
- Jones, B. L., & Nagin, D. S., "Advances in group-based trajectory modeling and an SAS procedure for estimating them",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007, 35(4), pp. 542-571.
- Jones, J. M., & Sander, J. B., & Booker, K. W., "Multicultural competency building : Practical solutions for training and evaluating student progress", *Training and Education in Professional Psychology*, 2013, 7(1), pp. 12-40.
- Kendrick, K., & Jutengren, G., & Stattin, H., "The protective role of supportive friends against bullying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Journal of adolescence*, 2012, 35(4), pp. 1069-1080.
- Kofler, M. J., & McCart, M. R., & Zajac, K., Ruggiero, K. J., & Saunders, B. E., & Kilpatrick, D. G., "Depression and delinquency covariation in an accelerated longitudinal sample of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010, 79(4), pp. 458-480.
- Li, Y., & Lerner, R. M., "Trajectories of school engagement during adolescence : implications for grades, depression, delinquency, and substance use", *Developmental psychology*, 2011, 47(1), pp. 233-260.
- Lynne-Landsman, S. D., et al., "Trajectories of aggression, delinquency, and substance use across middle school among urban, minority adolescents", *Aggressive behavior*, 2011, 37(2), pp. 161-176.

- Moffitt, T. E., "A review of research on the taxonomy of life-course persistent versus adolescence-limited antisocial behavior", *The status of criminological theory*, 2006, 3(5), pp. 277-311.
- Murphy, D. A., & Brecht, M. L., & Huang, D., & Herbeck, D. M. (2012). "Trajectories of delinquency from age 14 to 23 in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sample.",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ce and youth*, 17(1) : 47-62.
- Nagin, D. S. (2014). "Group-based trajectory modeling : an overview", *Annals of Nutrition and Metabolism*, 65(2) : 205-210.
- Nagin, D. S., & Odgers, C. L., "Group-based trajectory modeling in clinical research.",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2010, 6(3), pp. 109-138.
- O'Connor, E. E., & Dearing, E., & Collins, B. A.,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behavior problem trajectories in elementary school.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011, 48(1), pp. 120-162.
- Odgers, C. L., & Moffitt, T. E., & Broadbent, J. M., & Dickson, N., & Hancox, R. J., & Harrington, H., & Caspi, A., "Female and male antisocial trajectories : From childhood origins to adult outcom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008, 20(2), pp. 673-716.
- Shaw, D. S., & Hyde, L. W., & Brennan, L. M., "Early predictors of boys' antisocial trajectori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012, 24(3), pp. 871-888.
- Silver, E., & Miller, L. L., "Sources of informal social control in Chicago Neighborhoods", *Criminology*, 2003, 42(3), pp. 551-583.

- Tobler, A. L., & Komro, K. A., "Trajectories of parental monitoring and communication and effects on drug use among urban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010, 46(6), pp. 560-568.
- Van Dulmen, M. H., Goncy, E. A., Vest, A., & Flannery, D. J., "Group-based trajectory modeling of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from childhood through adulthood : Exploring discrepancies in the empirical findings", *The development of persistent criminality*, 2009, 61(3), pp. 288-314.
- Wang, M. T., & Dishion, T. J., "The trajectories of adolescents' perceptions of school climate, deviant peer affiliation, and behavioral problems during the middle school year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012, 22(1), pp. 40-53.
- Windle, M., & Wiesner, M., "Trajectories of marijuana use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 Predictors and outcom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004, 16(4), pp. 1007-1027.

< ABSTRACT >

## **A Study on the Delinquency Trajectory of Multi-cultural Juvenile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Group Selection**

Lee, Won-Ki · Yu, Hyo-Eun · Lee, Chang-Han

The study was designed to derive delinquency trajectory for multicultural teenagers and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group selection. Multicultural Youth Panel data were used for the study, and group-based trajectory model analysis was used for the analysis method. Studies have shown that the delinquency of multicultural teenager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ffected by gender, depression, school adaptation, residence recognition, and bullying experiences, and that the juvenile has five delinquency developmental trajectories.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was shown to have features of ascending, initial high-delinquency, reduced, low-delinquency and no-delinquency.

The study also compared the delinquency trajectory to the no-delinquency group and presented the characteristics and the factors that each group has. Through this research,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group types of delinquency patterns of multicultural teenagers and identify the need for specific delinquency prevention measures considering the factors chosen by each group.

◆ **Key words** : Multicultural Youth, Multi-cultural Youth Panel, Delinquency, Developmental Trajectory, Youth Delinquency